



사이버대학교 3회 연속
교육부인증평가 3A등급



scue 이야기

2026 Vol. 55

모두를 위한 대학
서울사이버대학교



세계대학총장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AUP) 창립 60주년 기념 총회 개최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AI 기반 교육 혁신

University World News

THE GLOBAL WINDOW ON HIGHER EDUCATION

Korea's Education Minister Choi Kyo-jin told the conference "in this era of AI and digital innovation, universities must go beyond the simple transmission of knowledge to create new value and nurture global talent capable

of addressing humanity's shared challenges".

IAUP Vice-President for Asia and the Middle East Eunjoo Lee, who is president of Seoul Cyber University (SCU), which hosted the conference, told University World News: "What we

need today is not only reflection but a fundamental reimagining of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higher education – even to envision something that has not yet existed."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유니버시티 월드 뉴스(University World News, UWN)가

지난 10월 17일 본교가 주최한 IAUP 창립 60주년 기념 총회 관련 기사를 심도 깊게 다루며,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한국 최초의 100% 온라인 대학으로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2007년 영국에서 설립된 UWN은 전 세계 대학과 교육정책, 연구, 지속가능발전(SDGs) 이슈를 다루는 가장 신뢰받는 고등교육 뉴스 플랫폼이다.



세계대학총장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총회



앤더슨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약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개원 축하 공연

CONTENTS

SCU 이야기 VOL.55

SCU 기획기사 04 서울사이버대학교 주최 세계대학총장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총회

SCU INSIDE 10 ISSUE & FOCUS

차이콥스키재단 안드레이 웨르박 총괄이사
음악경영학 명예박사 학위
앤더슨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약
글로벌 교육 협력 네트워크 확대
(카자흐스탄 Q 대학교,
루마니아 드미트리 칸테미르 크리스찬 대학교,
베트남 후에 대학교,
헝가리 두나우이바로쉬 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개원 축하 공연
2025 미래사회전략연구소 국제학술대회
Microsoft 생성형 AI Skill Up 프로젝트
서울사이버대학교 및 총학생회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SCU STORY

18 HEALING
슈만이 남긴 낭만의 여정

20 MEET SCU
대학원 상담·임상심리학과 최윤희 동문 외

28 SCU LOUNGE
빛으로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 김복동

30 TRIP
제29기 해외역사문화탐방 베트남

32 해외연수
폴란드 바르샤바 프레데리크 쇼팽 음악대학교와
제1회 성악과 해외연수 외

34 교수 칼럼
AI 시대 디자이너의 핵심 역량,
AI를 지휘하는 디자이너

35 학교 동정
신임 교원 및 2026학년도 신설 학과 외

SCU NEWS

40 SCU 소식
2025 베트남 하노이 한국유학박람회
컴퓨터공학과 '자율주행의 현재와 미래' 특강
이상엽Math 초청 수학 특강 '실수를 넘어'
한산이가 작가와 함께하는 장르소설 특강
AI부동산빅데이터학과 출판기념회
제2회 SCU 뷰티강사 임명식 외

43 MOU 뉴스
퍼플하트와 업무협약
휴시스와 업무협약
김포시청소년재단과 업무협약
서울청년센터 청춘벨딩과 업무협약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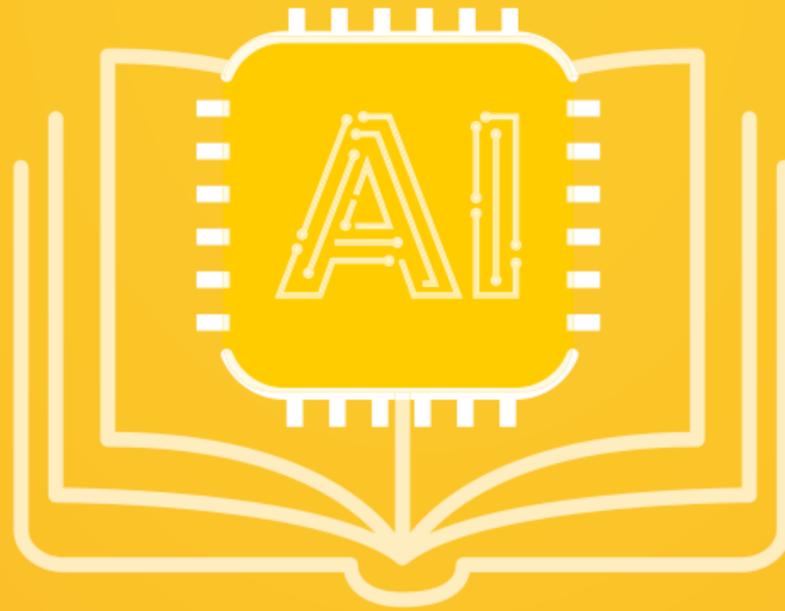
44 교수 동정



60th Anniversary 1965-2025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AUP 60th Anniversary & Semi-Annual Meeting, Seoul, South Korea

Higher Education Reimagined: Innovation, Inclusion, and Global Collaboration in the AI Era



Dates

October 13 Mon - 15 Wed 2025

Location

The Westin Josun Hotel Seoul & Seoul Cyber University

서울사이버대학교 주최 세계대학총장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총회 IAUP 60th Anniversary

AI 시대 고등교육의 혁신과 포용, 글로벌 협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세계대학총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AUP) 창립 60주년 기념 및 2025 하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의 고등교육: 혁신·포용·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열렸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주최한 세계대학총장협회(IAUP) 창립 60주년 기념 총회 및 국제 세미나에서 쉰 첸(Shawn Chen) 회장은 개회 연설을 통해 “AI는 교육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하는 전환점이며, 대학은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 인류의 미래

를 설계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IAUP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 25년간 온라인 AI 교육혁신을 이끌어온 만큼, 이



개회 연설을 하는 쉰 첸 IAUP 회장



기조연설 중인 이상균 이사장



토마스 모랄레스 차기 회장과 토론 참석자들

이번 행사가 AI 시대 고등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AI 시대의 대학 리더십과 고등교육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술 세션에서는 아르투로 체르보스키(Arturo Cherbowski) 멕시코 산탄데르그룹 사무총장이 ‘고등교육의 위기와 혼란: 재창조의 필요성과 기본으로의 회귀(Of Crisis and Disruptions in Higher Education: The Need for Reinvention and the Importance of Going Back to Basics)’를 주제로 첫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후 ‘AI 시대의 대학 모델 재구상(Reimagining University Models in the Age of AI)’, ‘글로벌 교육의 포용적 혁신(Driving Inclusive Innovation in Global Education)’, ‘연구와 지속 가능한 재원 혁신(Advancing Innovation through Research and Sustainable Funding)’, ‘변혁적 여성 리더십

(Transformative Female Leadership)’ 등 세션별 토론이 심도 깊게 이어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AI 시대를 선도하는 본교의 우수한 글로벌 교육 시설을 둘러본 후, 차이콥스키홀에서 ‘디지털 시대의 대학 협력(Collaborative Pathways - University Partnerships in the Digital Era)’을 주제로 공동 연구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폐회식에서 토마스 모랄레스 IAUP 차기 회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치밀한 준비와 따뜻한 환대가 전세계 대학 리더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본교는 AI 기반의 고등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도 기술과 인문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국제적 협력과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손첸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이상균 이사장



손첸 회장과 폰차이 총장



갈라디너에 참석한 180여 명의 세계 고등교육기관 대표



IAUP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페르난도 레온 가르시아 총장



환영사를 건네는 본교 이은주 총장



손 첸 회장과 이상균 이사장



환담을 나누는 이상균 이사장과 미국 미네르바 대학 벤 넬슨 최고 경영자



기념사진 촬영 중인 손 첸 회장과 참석자들



벤 넬슨 최고 경영자와 이은주 총장, 정상원 수석부총장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세션 현장



토마스 모랄레스 차기 회장과 이은주 총장



본교 차이콥스키홀에서 '협력의 길-디지털 시대의 대학 간 파트너십'이란 주제로 열린 마지막 세션



본교에서 진행된 IAUP 보드 미팅 모습



IAUP 회원 대학 간 활발히 이뤄진 MOU 체결

IAUP 60주년 홍보물 제작

서울사이버대학교 디자인센터는
IAUP 6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공식 기념품과 홍보물을
제작했다.



IAUP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곳곳에 배치된 홍보물과 공식 기념품



판소리, 대금, 살풀이춤으로 환영 공연을 펼친 공연팀과
기념 촬영을 하는 손철회장 등 관계자들



10월 14일 갈라디너에서 뮤지컬 퍼포먼스를 선보인 본교 정호윤 교수, 소프라노
황수미, 반주자 정이와와 기념 촬영을 하는 손철회장과 토마스 모랄레스 차기 회장



IAUP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를 위해 모인 180여 명의 세계 고등교육기관 대표

차이콥스키재단 안드레이 쉘르박 (Andrey M. Scherbak) 총괄이사 음악경영학 명예박사 학위



차이콥스키재단 안드레이 쉘르박 총괄이사와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본교 이은주 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2월 19일 차이콥스키재단 안드레이 쉘르박 총괄이사에게 음악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번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러시아 음악 유산의 계승과 국제 문화예술 교류 확대에 대한 공로, 그리고 본교 예술대학 발전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안드레이 쉘르박 총괄이사는 러시아 음악과 문화예술의 국제적 확산을 이끌어온 문화예술 행정가이다. 국제 차이콥스키 청소년 음악 콩쿠르의 창립과 운영을 주도해 대회를 권위 있는 청소년 국제 음악 경연의 장으로 정착시켰으며, 전 세계 유망한 젊은 음악가들의 성장 기반을 넓혀왔다. 러시아 주요 음악 교육기관 교수진이 참여하는 국제 마스터클래스도 다수 조직해 차세대 음악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특히 안드레이 쉘르박 총괄이사는 본교 예술대학의 설립과 위상 확립 과정에도 기여했다. 'Tchaikovsky School of Music' 명

명, 야마하 디스클라비어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마스터클래스 수강 환경 마련, 국제 온라인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International Tchaikovsky Online Piano Competition for Young Musicians'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온라인 기반 고등 음악교육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본교는 이번 학위 수여를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 간 문화 예술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안드레이 쉘르박



앤더슨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약

Anderson University



앤더슨대학교 에번스 휘태커 총장과 초완대학교 크리스토퍼 화이트 총장,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 본교 이은주 총장, 구국모 부총장과 관계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1월 3일 본교에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앤더슨대학교 (Anderson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약(MOU)을 체결하고,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양교 간 학문적 협력과 교육·문화·기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학생과 교직원 교류, 공동 연구, 학위 및 교육과정 공유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행사에는 주요 보직교수 및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앤더슨대학교에서는 에번스 휘태커(Evans P. Whitaker) 총장과 신시아 휘태커(Cynthia D. Whitaker), 초완대학교(Chowan University)의 크리스토퍼 화이트(Christopher M. White) 총장과 린다 화이트(Linda F. White)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서 본교 구국모 부총장이 앤더슨대학교로부터 저널리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휘태커 총장은 “구 부총장은 신앙과 교육의 가치를 실천하며 서울

사이버대학교를 대표해 세계적 온라인 교육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라고 치하하며, 명예박사 학위 수여의 의미와 함께 깊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에 구국모 부총장은 “앞으로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미래 대학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구국모 부총장과 앤더슨대학교 에번스 휘태커 총장, 신시아 휘태커

글로벌 교육 협력 네트워크 확대

카자흐스탄 Q 대학교와 업무협약 Q University



카자흐스탄 Q 대학교와 본교 관계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9월 11일 카자흐스탄 Q 대학교(Q University)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사야샷 누르벡(Sayasat Nurbek) 카자흐스탄 고등교육·과학부 장관,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Nurgali Arystanov)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아이술루 자네기조바(Aisulu Janegizova) 총장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 후 양측 주요 인사들은 본교 캠퍼스를 둘러보고 교내에 설치된 아바이 쿠난바예프(Abai Kunanbayev, 1845~1904) 흉상을 방문해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루마니아 드미트리 칸테미르 크리스찬 대학교와 업무협약 Dimitrie Cantemir Christian University



루마니아 DCCU와 본교 관계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1월 12일 루마니아 드미트리 칸테미르 크리스찬 대학교(Dimitrie Cantemir Christian University, DCCU)와 캠퍼스 국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을 위해 DCCU의 코리나 아드리아나 두미트레스쿠 총장과 나르시사 이사일라 디지털화 부총장이 본교를 방문했다. 협약식 후 본교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 러닝 시스템과 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시연하며 모듈형 온라인 강의 콘텐츠, 빅데이터 기반 학사 관리, 다국어 지원 시스템, AI 튜터 및 디지털 휴먼 교수 등 원격교육 인프라를 소개했다. 

★ 베트남 후에 대학교 개방교육정보기술연구소 방문

Hue University



베트남 후에 대학교와 본교 관계자들

지난 8월 21일 베트남 후에 대학교(Hue University) 개방교육정보기술연구소 관계자들이 본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 학습기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였다. 후에 대학교는 베트남 중부 후에시에 위치한 국립 종합대학으로 약 5만 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며 의학, 농업, 법학, 외국어, 경제, 공과 등 다양한 단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양측은 본교의 AI 기반 학습관리시스템(LMS)과 원격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MOU 체결을 통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수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

헝가리 두나우이바로쉬 대학교 방문

Dunaújváros University



헝가리 두나우이바로쉬 대학교와 본교 관계자들

지난 9월 15일 헝가리 두나우이바로쉬 대학교(Dunaújváros University) 담당자가 앞으로의 학술교류를 위해 본교를 방문했다. 이번 교류는 교육, 문화, 기술적 유대를 강화해 양측 간 협력과 소통을 확대하는 기회로 두나우이바로쉬 대학교에서는 야노시 술리(Mr. János Süli) 이사장, 마르첼 벤코(Mr. Marcell Benkó) 이사 겸 사무총장, 모니카 라지차니-몰나르(Dr. Mónika Rajcsányi-Molnár) 박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본교 교육 시설을 둘러보고 양교의 운영 현황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찬을 겸한 교류 시간을 보냈다. ▲

서울사이버대학교 후기 학위수여식



졸업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은주 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가 8월 23일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본교는 지금까지 학부 5만 6,638명, 대학원 1,514명 등 총 5만 8,152명의 인재를 배출했으며,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학부 1,484명과 대학원 81명이 새롭게 졸업했다. 이은주 총장은 식사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AI 선도대학을 선언하고 기술과 인문학의 조화를 교육 현장에 구현해왔다”며 “졸업생들이 AI 시대의 전문성과 인간다움을 겸비한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졸업생 대표로 가족코칭상담학과 오희정 학우가 단상에 올라 학위를 받았으며, 상담심리학과 이원정 학우가 전체 수석으로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각 단과대학 수석에게 총장상이 주어졌고, 공로상·봉사상·우수논문상 등 다양한 시상도 진행됐다. 석사과정에서는 사회복지전공 유정현 원우와 상담및임상심리전공 김보미 원우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대학원장상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우수논문

상과 공로상이 수여됐다. 특히 본교 동문인 김병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국방위원장)이 참석해 “이 자리에 서니 군 지휘관 시절 주경야독하며 본교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라며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따스한 축사를 전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예술대학 이명희 교수와 김연주 교수의 축하 공연, 이어 박영국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교정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졸업생들의 모습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 개원 축하 공연



차이콥스키홀에서 열린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개원 축하 공연

6월 24일 차이콥스키홀에서 본교 대학원 개원을 기념하는 축하 공연이 열렸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카르멘 서곡'이 공연의 화려한 시작을 알렸고, 이어 '그리운 마음', '돌아오라 소렌토로', '그리운 금강산' 등 익숙하고 아름다운 가곡들이 울려 퍼졌다. 계속해서 국립발레단 무용수들의 무대가 이어졌다.

공연단은 '백조의 호수', '지젤' 등 대표적인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감동과 찬사를 이끌어냈다. 발레 공연에 이어 오페라 무대가 펼쳐졌다. 국내 정상급 성악가 3명이 '세비야의 이발사', '투란도트', '라 트라비아타' 등 널리 알려진 오페라 아리아를 열창해 극장 안을 감동의 물결로 가득 채웠다. 마지막으로 가곡 '향수'와 '희망의 나라로'가 연주되며 공연은 모두가 한마음이 된 희망찬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이은주 총장은 "이번 대학원 개원은 온라인 고등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전이자, 그동안 쌓아온 교육 혁신의 결실"이라며

"고품격 예술의 향연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크나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특별한 순간으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깊은 울림이 되기 바란다"고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축하 공연에 참석한 이은주 총장과 교직원

2025 미래사회전략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본 '2025 미래사회전략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지난 8월 20일 미래사회전략연구소는 '2025 미래사회전략연구소 국제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ging and the Future of Society)'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령화사회가 직면할 사회적 과제를 조망하고, 복지·노인 케어 등 다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정책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논의로는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이노우에 다카시 교수가 「2015년부터 2065년까지 일본의 고령화 진행: SAPP 시리즈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대만 국립타이완대학교 천위화 교수가 「대만의 가구 구성과 장기 요양: 인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본교 박기훈 교수가 「일본 GBER 사업 도입 지자체 현황 및 과제: 노인의 삶의 보람 취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융합경영대학 AI서비스마케팅학과 Microsoft 생성형 AI Skill Up 프로젝트



'Microsoft 생성형 AI Skill Up 프로젝트' 참가자와 교수진

AI서비스마케팅학과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Microsoft Korea)와 협력해 'Microsoft 생성형 AI Skill Up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ChatGPT 모델 기반 AI 교육 플랫폼

품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교는 마이크로소프트 전문 교육팀과 연계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재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ChatGPT)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방식의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기획과 마케팅 전반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글로벌 AI 교육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와의 협업으로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며, 실질적인 산업 현장의 흐름을 체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및 총학생회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서울사이버대학교 포장증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장 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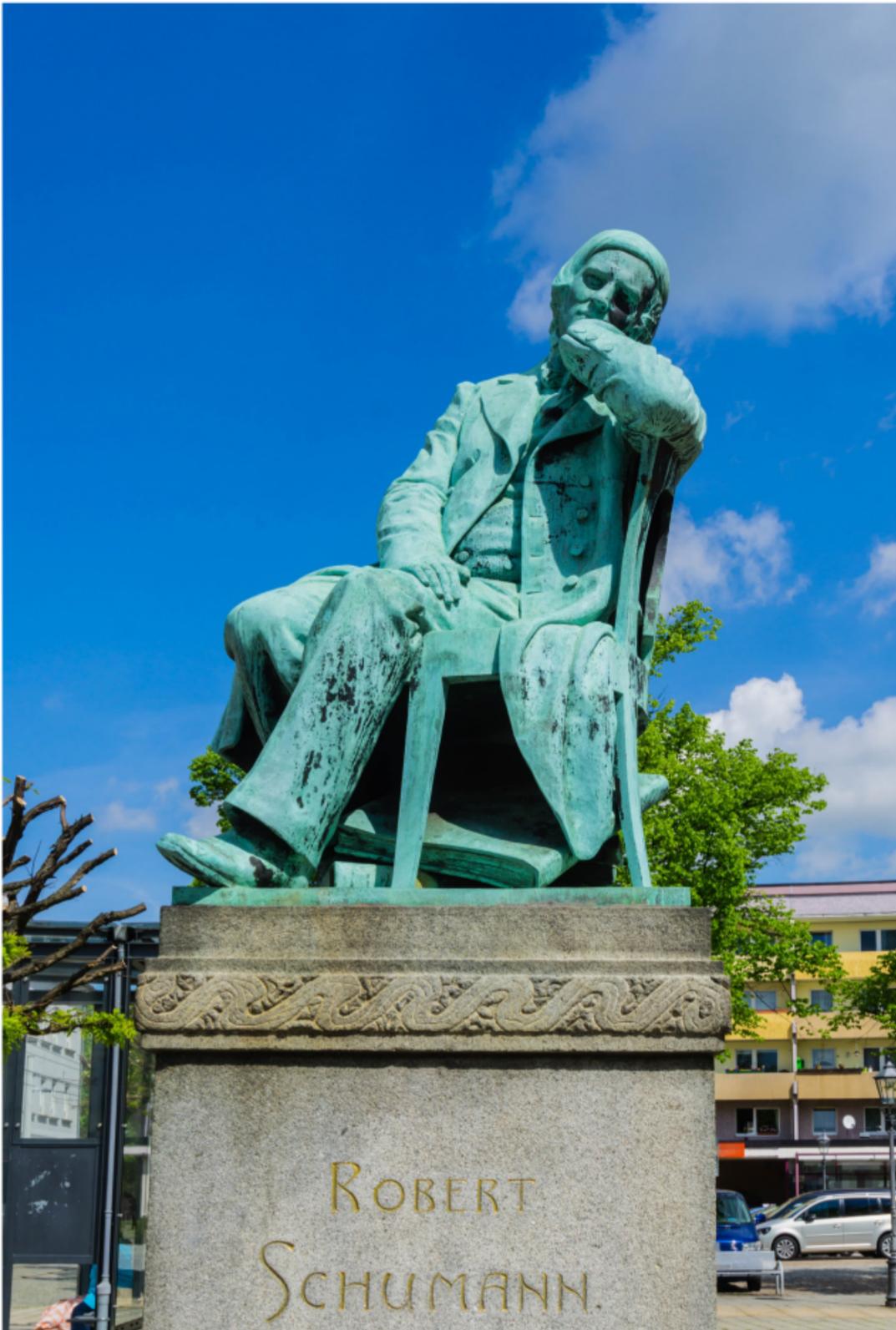
서울사이버대학교총학생회 포장증과 금장 훈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다양한 기부 활동을 전개해왔다. 최근, 본교와 총학생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본교는 지금까지 총 652만 5,000원의 기부금을 모아 2016년 빵나눔 봉사, 2023년 수해, 2025년 영남권 산불 등 다양한 재난과 위기 상황에 기여해왔다. 또한 총학생회는 7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2025년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을 지원했다. 본교와 총학생회는 이 기부 활동을 통해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을 수여받았다. 본교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슈만이 남긴 낭만의 여정

독일을 여행하며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 로베르트 슈만(1810~1856)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음악과 역사를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이다. 슈만은 문학과 음악을 아우른 예술가였고, 그가 남긴 발자취는 독일 여러 도시에 살아 숨 쉬고 있다.

Schumann



츠비카우에 있는 로베르트 슈만의 동상

츠비카우에서 라이프치히까지, 청춘의 선율

슈만의 음악을 들으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은 오늘도 독일 곳곳에서 낭만주의의 울림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곳은 작센주의 작은 도시 츠비카우(Zwickau)이다. 이곳은 슈만의 출생지로 현재 그의 생가가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마다 남아 있는 유품과 원고, 초상화는 음악가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전시실 한쪽에서 울려 퍼지는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는 방문객을 19세기 낭만주의 시대로 이끈다.

슈만이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펼친 도시는 라이프치히(Leipzig)였다. 이곳에서 그는 클라라와 함께 창작과 연주 활동을 이어갔으며,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라이프치히에서 보낸 삶은 슈만에게 풍부한 음악적 영향을 주었다. 1840년 클라라와 결혼한 슈만은 이듬해 교향곡 1번(Op. 38, '봄')을 완성했으며, 이는 라이프치히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힌다.

현재 '슈만 하우스(Schumann-Haus Leipzig)'에는 당시 생활공간과 연주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음악의 도시답게 거리 곳곳에서 공연장과 음악 기념물을 마주할 수 있어,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히 느낄 수 있다.

드레스덴의 대작, 뒤셀도르프의 마지막 노래

1844년부터는 드레스덴(Dresden)에서의 생활이 이어졌다. 슈만은 이곳에서 오페라와 대규모 합창 작품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특히 '낙원과 페리(Op. 50)'와 같은 대작을 구상했다. 드레스덴 시기는 슈만의 음악이 교향곡 같은 장대한 형태로 확장되는 시기였다. 도시 곳곳에는 그의 작품을 기리는 흔적이 남아 있으며 드레스덴 국립 오페라 극장은 슈만이 활동했던 무대를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다. 라인강이 흐르는 뒤셀도르프(Düsseldorf)는 슈만이 음악감독으로 활동한 마지막 무대였다. 그는 교향곡과 합창곡을 지휘하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갔고, 이 시기에 작곡한 교향곡 3번(Op. 97, '라인')은 대표작으로 꼽힌다. 현재도 매년 '슈만 페스티벌'이 열려 세계 각지의 음악 애호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드레스덴 오페라극장



독일 작센주 라이프치히의 오페라극장



드레스덴 프라우엔 교회와 광장의 전망

슈만, 내 청춘을 위로한 음악

예술대학 피아노과 이경숙 석좌교수

어린 시절 나는 모든 것이 재미있었다. 무서운 포탄이 공중에서 떨어져도, 전쟁 중이라 파놓은 방공호에 몸을 감추는 것도 마치 놀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기했던 호

기심 많은 어린이 이경숙도 어느덧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가족들의 부재와 함께 불현듯 찾아온 외로움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이토록 가장 절박할 때 만난 존재가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이었다. 중학교 시절 별다른 예비지식 없이 만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 단조는 외로웠던 나의 심경을 마디마디 대변해주듯 절실하게 다가왔고, 온 마음을 다해 작품의 연습에 매달렸다. 이남수 선생이 지휘하고 KBS 교향악단이 함께한 음악회는 내 인생의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슈만의 작품 속에는 절망의 울부짖음도, 달콤한 사랑 이야기도 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망도 보인다.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작품의 엔딩처럼 슈만은 방황하던 나의 10대를 위로해준 존재였다.

슈만의 보석 같은 피아노곡들을 지금껏 수없이 연주해 왔다. 젊은 시절 호기심으로 도전한 작곡가 전곡 시리즈를 통해 분에 넘치는 영광을 얻기도 했지만, 유독 슈만이 나의 사랑인 이유는 어려웠지만 아름답던 그 시절, 작품과 연주자가 한 몸이 되어 애쓰고 이뤄낸 그 음악들이 그리워서인지도 모르겠다. 슈만의 음악은 예술과 함께한 내 인생이 그래도 행복한 순간들로 채워져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우수논문상 수상 임상심리사 2급 취득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작은 소망을 실현하도록 돕는
상담가가 되고 싶습니다.



대학원 상담·임상심리학과

최윤희 동문



청소년과의 경험에서 시작된 꿈

최윤희 동문은 23년 동안 영어 강사로 재직하며 중·고등학생들과 소통해왔다. 수업 중 학생들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 어린 공감과 지지만으로도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상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아이들을 보면서 전문 지식을 갖춘 청소년 상담가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본교 대학원 입학 이유를 밝혔다.

2년간의 치열한 학업을 마치고, 2025년 8월 졸업을 맞은 최윤희 동문은 졸업식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며 결실을 맺었다. 논문 주제는 ‘집단 보드게임이 노인의 대인관계 능력, 외로움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그는 “친정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에서 시작된 관심이 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연구를 설계했고, 김지연 지도교수님의 열정적인 지도 덕분에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배움으로 이룬 성장과 앞으로의 목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던 본교에서의 대학원 생활은 최윤희 동문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이었다. 그는 “수준 높은 강의 덕분에 전문 상담가로 나아갈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과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로 근무하고 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최윤희 동문은 “대학원에서의 배움을 실무에 접목해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상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양한 트랙과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라며 후배와 예비 지원자들에게도 용기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경일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학부 교수 임용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자
복지의 한 영역입니다.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은학 원우



교통에서 복지를 보다

본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공부 중인 이은학 원우는 현재 교통공학과 철도공학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며 대중교통, 이동권, 교통 약자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 연구를 이어가던 중 '교통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며, 이동을 이해하려면 사회복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교 대학원에 진학했다. 현재 논문학기로 '교통 복지'를 핵심 키워드로 논문 주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은학 원우가 본교 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그의 연구 방향을 더욱 넓혀주는 기회가 되었다. "이전에는 교통 효율과 인프라 중심으로 바라봤다면, 지금은 '이 정책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라고 변화된 시각을 설명했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관점은 경일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학부 교수 임용 과정에서도 강점이 되었다고 말한다.

학문과 현장을 잇는 시선

이은학 원우는 본교 대학원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깊이 있는 공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온라인 수업이지만 강의의 질이 높고, 토론과 과제를 통해 교수진 및 원우들과 충분히 교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분야의 원우들과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했던 경험은 교통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그는 교통공학과 사회복지를 연결하는 연구를 이어가며 교통 약자의 이동권 향상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현장 경험을 학문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지금의 일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라며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따뜻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



심리·상담대학 특수심리치료학과 장철희 동문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31년 봉사

IBK기업은행에서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로 재직 중인 장철희 동문은 고교 시절인 1993년부터 시작된 봉사를 31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의 누적 봉사 시간은 2,600시간을 넘어선다. 봉사의 보람을 알게 해준 고교 시절 헌혈 및 노인 요양원 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그의 나눔은 재능 기부와 함께 진화했다. 대학 시절 노인정 발마사지 활동으로 나눔의 폭을 넓혔고, 군 복무 중 취득한 한식조리사 자격증으로는 노숙인 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이후 수상인명구조와 스쿠버다이빙 자격까지 갖춰 수중 환경 정화, 실종자 수색, 보육원 청소년 스킨스쿠버 교육 등으로 활동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했다. 지금도 민간해양구조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여러 단체에서 활발히 활약 중이다.

배움으로 확장한 행복한 재능 기부

장철희 동문이 학업을 다시 시작한 것은 봉사의 질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용인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후, 그는 사이버대학교 입학 을 통해 사회복지행정학과 등 6개 학과를 이수하며 총 7개의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장애인 봉사 경험을 통해 특수심리 치료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본교 특수심리치료학과에 최종 진학했다. 그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학생 맞춤형 서비스와 실습기관 연계, 그리고 교수 및 선배와의 교류가 학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장철희 동문은 “더 열심히 나누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평소처럼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소감을 전했다. 현재는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를 이어가며 “나와 가족 및 지인들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작은 나눔을 계속 실천하겠습니다”라며 더욱 단단해지는 앞으로의 목표를 다짐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상 복지실천상 수상

“

가난은 숨길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도록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전공

전익형 동문

현장에서 배운 복지의 본질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실장으로 재직 중인 전익형 동문은 신학 전공 후 복지의 필요성을 체감하며 2002년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전공에 입학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던 시절, 그는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일념으로 본교를 선택했고 20년째 사회복지 현장을 지키고 있다. 전익형 동문은 “서울사이버대학에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더라는 로고송 그대로 제 인생은 변화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본교 입학 후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었음을 밝혔다. 특히 그는 자살 위기에 처한 주민을 석사과정까지 이끌고, 방황하던 청소년을 대학에 진학시키는 등 소외된 이들의 곁을 지키며 사회복지의 본질을 체감했다. 2014년 화재 당시 주민 30여 명의 생명을 구한 경험은 그가 지금까지 현장을 지키는 큰 동력이 되었다.

배움으로 이룬 성장과 앞으로의 목표

사실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던 전 동문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본교의 교육 환경은 최적이었다. 그는 “수준 높은 강의 덕분에 당당하게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복지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회상했다. 이러한 헌신을 인정받아 최근에는 아산 사회복지재단에서 수여하는 아산상 ‘복지실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라며 소박하지만 확실한 꿈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후배 학우들에게는 실무 역량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자격증이 아닌 회계, 행정, 글쓰기 등 즉각 활용 가능한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학교 시스템 안에서 실무 지식을 꾸준히 공부해 준비된 사회복지사가 되길 바랍니다”라며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인생을 바꾸는 가치 있는 도전에 나선 학우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



100명의 어르신께 도시락 봉사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

봉사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니라
제 삶을 더 단단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이었습니다.

”

사회복지대학 노인복지전공

나한희 동문

나눔에서 시작된 배움

남을 돕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나한희 동문은 체계적으로 이웃을 돕고 싶어 2013년 본교 노인복지전공에 입학해 학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며, 비영리단체 '참아름다운 동행'을 이끌고 있다. 봉사자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도시락을 전달하고 일요일에는 국수 나눔으로 150여 명을 돕는다. 초기에는 대상자 확보조차 어려웠지만 지금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처음 33명에게 도시락을 전하며 출발했는데, 지금은 100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한희 동문은 봉사 과정에서 안타까운 순간도 많았다고 회상했다. “도움을 드린 어르신 중에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님의 손자분이 계셨습니다. 본인 역시 참전 용사로 국가유공자였지만,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무연고 처리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장례를 돕게 되어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하며 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퀴즈' 출연 이후 커진 울림

지난 9월, 나한희 동문은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방송을 통해 그의 진솔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참아름다운동행 회원 수는 10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증가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경제적 걱정 없이 봉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의 꿈은 '치매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스웨덴의 치매 마을처럼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며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한국에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봉사의 씨앗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에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시작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며 후배들에게 용기의 말을 남겼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한국어 강사

“

SCU는 나이, 성별, 국적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처럼 직업과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

사회과학대학 한국어교육학과

마수지 동문

한국에서 이어간 한국어 교육의 길

몽골국립사범대학원에서 물리교육전공 석사학위를 받은 마수지 동문은 몽골국립사범대학교 물리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한국에 왔다. 현재는 충청북도국제교육원에서 초·중학생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디딤돌 과정’을 지도하며,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한국어학원과 청주시 가족센터에서도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21년 충북국제교육원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던 중 본교 한국어교육학과를 알게 되었고, 입학 후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전한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졸업 후 처음 강단에 섰을 때는 외국인 교사를 바라보는 호기심 가득한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처음엔 두려움이 많았지만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며 점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마수지 동문은 학교에서의 배움이 실무에서 큰 힘이 되었다고 전한다.

끊임없는 배움과 새로운 도전

졸업 후에도 그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동문들과 함께 ‘한국어 선생님들의 모임(한선모)’을 만들어 3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을 꾸준히 쌓고 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마수지 동문은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 국어학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싶고, 나아가 한국어교원 1급 자격을 취득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후배와 예비 지원자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원하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성악과 수기 공모전 1등

“

노래는 잃었던 목소리를 되찾게 해주었고,
글은 제 안에 오래 묻어둔 마음을 되살려
진짜 저 자신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



예술대학 성악과

김예슬 학우

잊었던 꿈을 다시 노래하다

예술대학 성악과에 재학 중인 김예슬 학우는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며 오랫동안 간직해온 성악가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겼지만, 어머니의 사고 이후 오랜 시간 음악과는 멀어진 채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 계기로 다시 노래에 대한 열정을 실현하게 되었다. 김예슬 학우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냈지만 노래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성악과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기뻐합니다”라며 입학 소감을 전했다.

첫 향상음악회와 마스터클래스 무대는 김예슬 학우에게 큰 전환점이었다. 무대가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 성장하고 응원하는 공간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진짜 제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 있었죠”라며 무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노래와 글로 얻은 성장

최근 김예슬 학우는 교내 성악과 수기 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하며 글쓰기를 통한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다. “노래가 제 목소리를 되찾게 해주었다면, 글은 제 마음을 되찾게 해주었어요”라는 그의 고백처럼 음악과 글은 동시에 치유와 성장을 안겨주었다.

앞으로 그는 “더 많은 무대에서 진심을 전하는 성악가이자,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울림을 주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성악과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라며 “꿈에 도전하는 이라면 교수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이해주실 거예요”라고 후배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AI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입상



작은 도전이라도 멈추지 않고 이어가면
반드시 성장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보세요.



공과대학 인공지능학과

이현우 학우

새로운 길, 인공지능에 도전하다

인공지능학과에 재학 중인 이현우 학우는 처음에는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지만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공부를 계기로 인공지능 분야에 흥미를 느껴 전과를 결심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위 취득이 목적이었지만 공부를 이어가면서 전공 자체에서 더 큰 재미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라며 당시의 생각을 전했다. 본교의 커리큘럼은 자격증 취득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시험 준비와 학습을 함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업 몰입도도 높아졌다.

특히 교내 인공지능 경진대회 참여는 전환점이 되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지만, 반복된 시도 끝에 자신감을 얻었고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라고 회상했다. 또한 본교 수업 환경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라며, “또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학생들의 높은 수준을 실감합니다”라고 전했다.

경진대회와 자격증으로 이어진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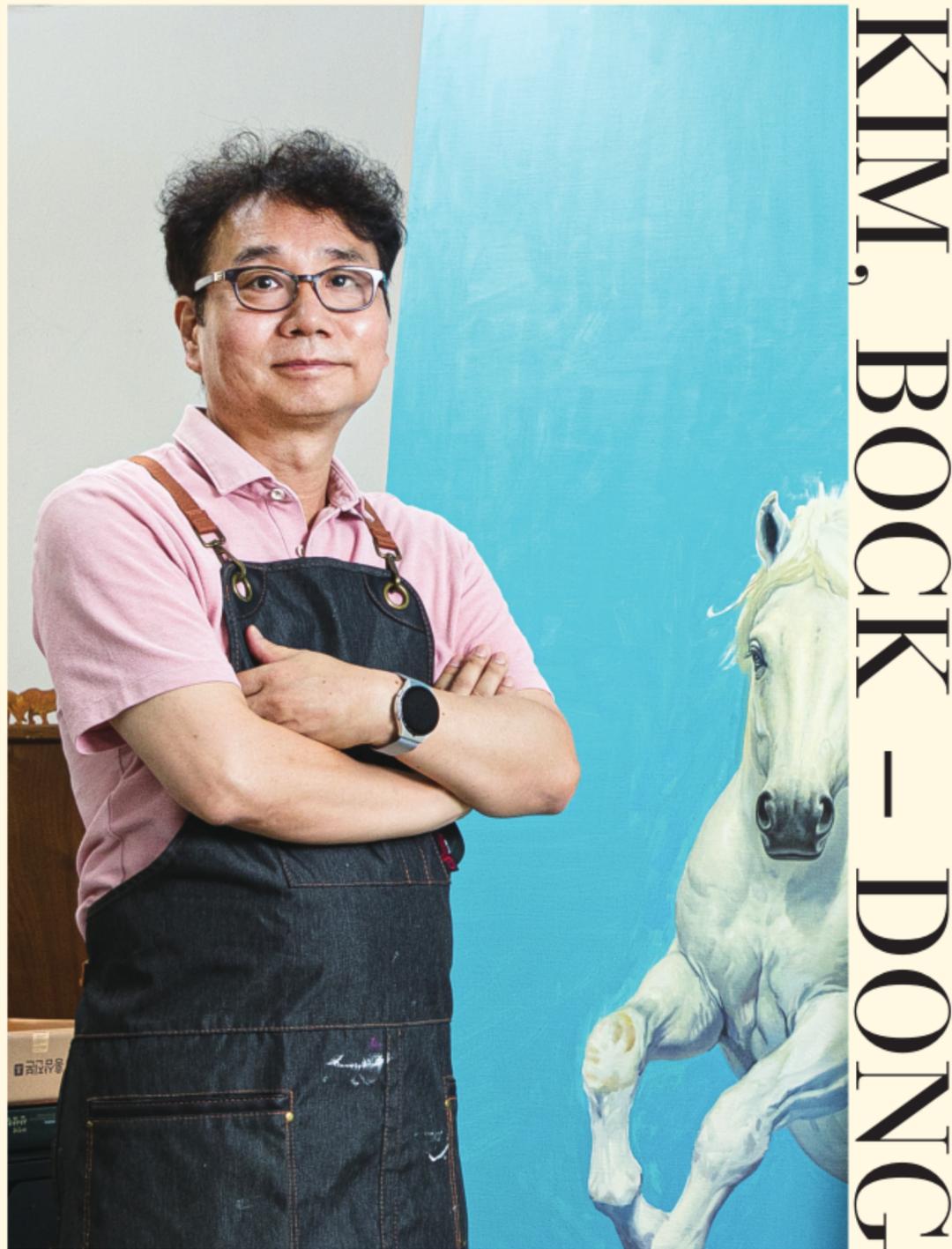
이현우 학우는 네 차례의 교내 대회에서 두 차례 1등을 차지하고 외부 플랫폼 대회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회 준비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고, 이는 자격증 취득에도 큰 도움이 됐다. 실제로 지난 2025년 6월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대회에서 다룬 주제가 시험 준비에 큰 힘이 됐습니다”라고 학과 수업에 만족감을 표했다.

현재는 대회 참가를 목표로 하는 학과 동아리 ‘딥 챌린저’ 활동과 함께 전국 단위 대회에 도전 중이다. “이성만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의 세심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끝으로 “작은 도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면 누구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라며 후배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빛으로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

화가 김복동



김복동(1966~)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와 예원예술대학교 한지조형예술과를 졸업했다. 지금까지 총 20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25년에는 인사아트센터 G&J갤러리/나주미술관에서 '제20회 개인초대전'을 성료했다. 같은 해 코엑스 '월드아트엑스포'와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에서 열린 '대한민국현대인물화가회' 정기전 등에 참여했다. '2024 신사임당미술대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작품은 사법연수원, 서울지방법원고양지원, LIG, 포스코, 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무학교회, 여수시, 기업은행 등에 소장돼 있다.

인물화를 꾸준히 탐구해온 김복동 작가는 성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내며 빛과 어둠, 오브제를 결합한 독창적 회화를 전개해오고 있다.

현대 회화 속에서 성화를 깊이 탐구해온 김복동 작가는 신앙과 예술을 잇는 독창적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종교적 주제를 단순한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빛과 어둠의 대비와 오브제를 결합해 동시대적 감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작가는 신앙을 바탕으로 성화 작업을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아브라함 시리즈'를 비롯한 인물화와 풍경화를 제작했다. 이후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1571~1610)와 조르주 드 라 투르(1593~1652)의 작품 세계에 깊은 영향을 받아 성화 시리즈에 몰입하게 되었고, 촛불의 명암법과 강렬한 빛의 표현을 작품 속에 차용하며 2천 년 전 복음의 메시지와 현대인의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내고 있다. 특히 나무와 돌을 작품 속 오브제로 활용하는 실험을 이어왔다. 잠시 복잡한 서울을 떠나 문경 작업실에서 제작한 대형 성화에는 옷나무와 피죽나무, 자연석 등이 결합되어 회화와 입체가 어우러지는 구성을 보여준다. 이는 성경 속 상징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현대인이 성화 속 메시지에 직접 참여하는 효과를 만든다.

작가의 성화 작업은 과거의 신앙적 기록물이 아니라 동시대의 신앙과 삶을 성찰하는 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현대인은 작품 속에서 메시지를 증거하거나 동참하는 존재로 자리한다. ▲



Salvation 2014~5, oil on canvas & wood, 290.9 x 193.9cm



Salvation 2014~6, oil on canvas & wood, 290.9 x 193.7cm



Salvation 2015~13, oil on canvas & wood, 344 x 161.9cm



Salvation 2015~15, oil on canvas & wood, 194 x 128cm



Salvation 2014~4, oil on canvas & wood, 235.5 x 130cm

🇻🇳 제29기 해외역사문화탐방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호찌민 묘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하롱베이에서 제29기 해외역사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문화예술적 통찰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시민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재학생 24명과 교직원 2명이 참여해 호안끼엠 호수, 36거리, 바딘 광장, 호찌민 생활관, 한기동 사원, 문묘, 하롱베이 유람선 등 주요 역사·문화 공간을 둘러보며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PTIT에 방문한 제29기 탐방단

특히 탐방 2일 차에는 지난해 본교와 2+2 공동학위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국립우정통신대학교(PTIT)를 방문해 베트남 학생 10여명과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현지 교육 시스템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교 해외역사문화탐방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 방문을 통해 문화 소양과 세계시민 역량을 높여온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은주 총장은 “해외역사문화탐방이 학생들의 견문과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PTIT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제29기 탐방단



베트남으로 해외역사문화탐방을 떠나는 제29기 탐방단



하롱베이 유람선 체험

배움을 실천으로 잇는 글로벌 성장의 기록

뷰티디자인학과 심재근 학우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디자인학과 재학생이자 앰배서더 3기 SNS·디자인팀장 심재근입니다. 이번 겨울, 제29기 해외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베트남에서 경험한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3박 5일 동안의 매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특히 베트남 국립우정통신대학교(PTIT)를 방문해 학교를 대표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경험은 저를 크게 성장시킨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재학생의 시각으로 우리 학교의 온라인 기반 교육 시스템과 49개 학과, 그리고 유연한 학습 환경 등 실질적인 경쟁력을 소개했고 현지 분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재미있었던 점은 앰배서더 3기 활동으로 만든 학교 로고송 안무를 PTIT 학생들과 함께 챌린지 형식으로 진행한 것이었는데,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소통하며 즐겁게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역사문화탐방을 떠나기 전 앰배서더로서 홍보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했습니다. 탐방 전부터 학교의 주요 강점이 담긴 홍보 티켓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현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우리 학교를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홍보 콘텐츠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이번 해외역사문화탐방은 세상을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학교의 가치를 증명하며 배움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밀도 높은 성장의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베트남의 뜨거운 햇살 아래 심은 작은 씨앗이 앞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글로벌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앰배서더 활동으로 제작한 로고송 안무 콘텐츠가 SNS에서 무려 65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고, 졸업을 앞두고 잊지 못할 마지막 추억이 된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내년에는 학부가 아닌 대학원에서 우리 학교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꼭 찾고 싶습니다.

예술대학
성악과

폴란드 바르샤바 프레데리크 쇼팽 음악대학교와 제1회 성악과 해외연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예술대학 성악과는 지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1회 성악과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쇼팽국립음악대학(UMFC)과의 첫 공식 교류 프로그램이다.



폴란드 쇼팽 음악대학교 해외연수에 참석한 본교 재학생들과 관계자들

제1회 성악과 폴란드 쇼팽 음악대학교 해외연수에 성악과 재학생 10명이 이은주 총장, 이의신 부총장, 정호윤 예술대학장, 김민형 교수의 인솔로 참가했다. 학생들은 안나 라지에예프스카(Anna Radziejewska) 교수, 에우게니아 레즐레르 (Eugenia Rezler) 교수, 안나 미콜라이치크-니에비에지아우(Anna Mikolajczyk-Niewiedzia) 교수에게 세심하게 개인 레슨을 받았으며 무대 공포 극복, 스트레스 관리, 무대 직전 전략 등 특강과 함께 앙상블 트레이닝, 마스터클래스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연수 마지막 날에는 쇼팽 음악대학교 멜첼라홀에서 수료식과 연주회를 열어 현지 관객 앞에서 배운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수를 마치며 에우게니아 레즐레르 교수는 본교 학생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수십 년간 진행한 연수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학생들이었다고 전했다. 예술대학장 정호윤 교수는 “이번 해외연수는 학생들이 세계 음악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국제 프로그램을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헝가리 리스트 음악원과 제2회 피아노과 해외연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예술대학 피아노과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제2회 피아노과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해외연수는 리스트 음악원과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었다.



헝가리 리스트 음악원 해외연수에 참가한 본교 재학생들과 관계자들

제2회 피아노과 헝가리 리스트 음악원 해외연수에 피아노과 재학생 9명이 최성진 교수의 인솔로 참가했다. 학생들은 드라피(Dráfi) 교수, 팔바이(Falvai) 교수, 마루안(Marouan) 교수에게 집중 마스터클래스를 수강했으며 리스트 음악원 체임버홀에서 연주회를 열어 학습 성과를 발표했다. 연수 과정에는 마스터클래스와 연주회 외에도 오페라하우스 투어, 리스트 박물관 관람 등 문화예술 체험이 포함되어 재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술대학 피아노과 신지연 교수(부학장)는 “작년에 이어 열린 이번 제2회 해외연수가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경험과 새로운 시야를 제공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교 피아노과는 해외 유명 교수진의 마스터클래스와 국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실기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해왔다. 

AI 시대 디자이너의 핵심 역량

AI를 지휘하는 디자이너



디자인대학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신창식 교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디자인계의 가장 큰 화두는 ‘과연 인공지능(AI)이 디자이너를 대체할 것인가?’라는 불안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그 물음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의 단계를 넘어 디자인 프로세스 속에 깊숙이 스며든 협업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은 ‘AI와 공존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디자이너는 어떻게 AI를 이끌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로 진화해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몇 초 만에 뽑아내는 결과물은 비전공자의 눈에는 놀랍고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디자인 이론과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라면 그 결과물의 부족한 부분을 단번에 포착합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디테일, 브랜드 정체성과의 미묘한 어긋남, 조형적 완성도의 부족 등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지점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AI가 제시한 결과물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안목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몫입니다. 앞으로는 AI가 만든 어중간한 결과물이 넘쳐나겠지만 그 속에서 차별화된 완성도를 보여주는 디자인은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 무기를 휘둘러 줄 수 있는 탄탄한 기본기와 깊이 있는 고민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AI 시대에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략적 사고와 문제 정의 능력입니다. AI는 주어진 지시를 충실히 따를 수 있지만 “이 디자인이 지금 왜 필요한가?”, “사용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시장을 읽고, 사용자의 숨은 요구를 찾아내며, 디자인을 통해 비즈니스 목표를 실현하는 기획 능력은 인간만의 영역입니다.

둘째, 감성을 불어넣는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사람의 감정은 더욱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이 아무리 매끄럽더라도 그 안에 공감과 울림을 담아내는 것은 인간 디자이너의 몫입니다. 브랜드의 철학을 디자인에 녹여내고, 사용자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힘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입니다.

셋째, 창의적 시너지를 이끄는 협업 능력입니다. 앞으로의 디자이너는 개발자, 기획자, 마케터와 더불어 AI와도 협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단순히 시각 자료를 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협업의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AI 시대의 디자인은 기술과 창의성, 데이터와 감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합니다. 도구는 계속해서 발전하겠지만 인간 고유의 상상력과 공감 능력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대를 이끄는 ‘크리에이티브 지휘자’로 계속해서 성장해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

신임 전임교수를 소개합니다



예술대학
피아노과

김주영 교수

Moscow State Conservatory
연주 박사 (피아노 전공),
KBS 한국방송공사
라디오3국 클래식 FM
'KBS 음악살' 진행자



미래융합인재대학
실용영어학과

**Gerstner Nicki
Lois**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 (협동과정
글로벌교육협력 전공),
Shinil High School
Head Native English
Teacher



AI융합대학
AI부동산빅데이터학과

신일진 교수

강원대학교 부동산학
박사(부동산학 전공),
(현) 한국상권입지분석전문가협회
경영 대표



WISDOM교양대학
교양학과

박인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 박사 (노문학),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강사 및
특임강의 교수

새로운 미래를 열다

2026학년도 신설 학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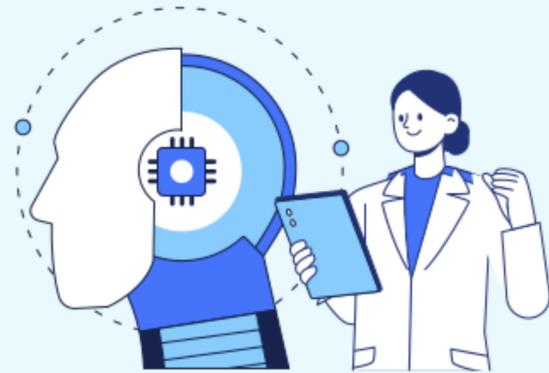
서울사이버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학부 3개 학과, 대학원 3개 학과를 신설한다.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

AI융합기술학과 석사·박사 학위

<https://xai.iscu.ac.kr>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AI융합기술학과 석·박사 과정은 공학 기반의 다양한 세부 분야(컴퓨터, 정보보호, 전기전자, 기계제어, 드론, 미디어, 기술창업 등)에 AI를 접목해 문제 정의-모델링-검증-적용까지 이르는 실전 역량을 갖춘 X+AI 인재를 양성한다.



뷰티산업학과 석사·박사학위

<https://insbeauty.iscu.ac.kr>

K-뷰티의 글로벌 확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융합에 대응해 화장품 산업, 뷰티테크, 메디컬 뷰티를 아우르는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블렌디드 러닝으로 학문과 실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



음악학과 석사·박사 학위

<https://gmusic.iscu.ac.kr>

본 학위과정은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유연한 학습 환경 속에서 예술과 학문, 그리고 치료의 영역을 아우르는 융복합 교육으로 미래형 전문 음악인을 양성한다. 성악, 피아노, 음악치료의 세 전공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전 연주, 임상 활동, 학문적 탐구를 통해 예술적 감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학 신설 학과

응용수학·통계학과

<https://math.iscu.ac.kr>

응용수학·통계학과는 수학적 사고와 통계적 추론 능력을 기반으로 데이터·AI·블록체인 시대를 선도할 실용 수리 인재를 양성한다. 논리적 문제 해결력과 실무 분석 역량을 함께 배양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융합형 전문인을 기른다.

졸업 후 진로

데이터 분석가, AI 엔지니어, 블록체인 개발자, 금융공학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등



스포츠지도학과

<https://sports.iscu.ac.kr>

스포츠지도학과는 현대사회의 건강·여가·체육 수요 확대에 대응해 실기 중심의 전문 지도 역량과 인문·사회적 소양을 갖춘 체육 전문가를 양성한다. 과학적 훈련과 자격증 기반의 실무 교육을 통해 스포츠 산업 전반에서 활동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

졸업 후 진로

시도체육회 및 공공스포츠센터 스포츠지도자, 재활병원 및 스포츠재활센터 운동전문가, 피트니스센터 지도자 및 창업, 스포츠선수 트레이너, 체육대학원 진학 등



반려동물산업학과

<https://pet.iscu.ac.kr>

반려동물산업학과는 생명과학 기반의 전문성과 ICT/BT 융합 능력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형 혁신가를 양성한다. 동물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윤리적 리더를 지향하며, 펫코노미 시대의 전문 인재를 배출한다.

졸업 후 진로

동물보건사 펫푸드 연구원, 펫테크 기업의 데이터 분석가, 반려견 행동지도사, 반려견 미용사, 펫시터 등



2024학년도 eBook 출간 지원사업 결실 전자도서 11권 공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2024학년도 eBook 출간 지원사업'을 통해 발간한 총 11권의 전자도서를 전면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교수진의 연구 성과와 교육 자료를 전자도서로 제작해 지식 확산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출간된 도서는 학술서, 전공서, 실무서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일부는 실제 강의 교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eBook 출간으로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료를 열람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저서 출간을 넘어 본교 지식 자산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아카이브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본교는 향후 이 사업을 정례화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CU 교수진 eBook 아카이브 목록

출간된 전자도서 11권은 현재 입학 홈페이지와 전자도서관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순번	학과	교수명	출간 도서명
1		박형원	위기개입과 사회서비스
2	사회복지전공	박기훈	비영리조직 마케팅 및 홍보
3		이희연	사회복지와 인권
4		김윤나	시민청소년 관점의 청소년 문제와 보호
5	상담심리학과	한수미	스트레스의 이해와 상담
6		김 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상담
7	특수심리치료학과	임정선	다양한 트라우마 이해하기
8	글로벌무역물류학과	이완형	AI 비즈니스와 서비스 경영
9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투자, 심리학을 만나다
10	컴퓨터공학과	이성태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하기
11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아이디어 발상

교육·연구역량 우수, 장관상 표창 수상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학과장 김동환 교수가 국토교통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김동환 교수가 올바른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왔으며, 특히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 자문과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관련 업무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다.

아동복지전공 임세희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아동복지전공 임세희 교수는 2025년 11월 30일, 한국아동복지학회의 추천을 받아 아동 권익 증진을 위한 연구 수행의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아동복지학회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아동·청소년·청년 전달체계 통합 및 보호 대상 아동의 가정형 보호로의 정책적 전환 과정에서 임세희 교수가 학술위원장으로서 2025년 수행한 활동 등을 높이 평가해 본 상의 수상자로 추천했다.

컴퓨터공학과 이성태 교수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서울사이버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학과장 이성태 교수는 직업 훈련 품질 개선과 직업능력 개발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성태 교수는 2023년부터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훈련 품질 개선 및 직업훈련 선진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콘텐츠팀 최준성 실장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



서울사이버대학교 콘텐츠팀 최준성 실장은 원격교육 환경 고도화와 이러닝 콘텐츠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준성 실장은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VX 실감형 콘텐츠 시스템을 단독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으며, 디지털 휴먼 강의 개발 등 원격교육 콘텐츠의 표현력과 몰입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2025 베트남 하노이 한국유학박람회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시 켄우저이 체육관에서 열린 '2025 베트남 하노이 한국유학박람회'에 참가했다. 본교는 사이버대학 중 유일하게 부스를 운영해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 정보를 제공했다. '2025 베트남 하노이 한국유학박람회'는 교육부 주최 유학박람회 가운데 최대 규모로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박람회 첫날 방문객은 1만 명을 넘어 지난해 첫날 기록(4천 명)의 두 배 이상으로 현지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컴퓨터공학과 '자율주행의 현재와 미래' 특강



컴퓨터공학과는 지난 8월 9일 본교 아트테크 스튜디오에서 '자율주행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마련했다. 강연을 맡은 컴퓨터공학과 객준영 교수는 "이번 특강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엽Math 초청 수학 특강 '실수를 넘어'



지난 7월 12일 차이콥스키홀에서 수학 대중화 채널 '이상엽Math'를 운영하는 이상엽 강사를 초청해 '취미 수학 - 실수를 넘어(Beyond Real)' 특강을 진행했다. 본교 빅데이터·AI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강연은 수학 개념을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대중 강연 형식으로 꾸러졌다.

한산이가 작가와 함께하는 장르소설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학과가 지난 11월 8일 인기 작가 한산이가(이낙준)를 초청해 스페셜 특강 '웹소설 작가가 생각하는 재미'를 개최해 '웹소설의 창작 과정'을 주제로 작가가 된 계기, 자신에게 맞는 소재 발굴 방법, 히트작을 만든 기획·연재 운영 노하우를 공개했다.

AI부동산빅데이터학과 출판기념회



AI부동산빅데이터학과는 지난 6월 28일 『PropTech와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 출판 기념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책은 김유수 교수와 재학생 등 11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집필 과정은 AI를 활용한 초안 작성과 교정·교열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실무 적용이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제2회 SCU 뷰티강사 임명식



뷰티디자인학과는 지난 7월 8일 제2회 SCU 뷰티강사 임명식을 열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선임강사 5명과 준강사 13명이 임명됐다. 제2기 뷰티강사 대표 오현영은 "우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요가명상학과 임파워먼트 특강



요가명상학과는 10월 11일 '차명상과 소리명상, 그리고 자아의 호흡'을 주제로 임파워먼트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차명상연구소 단정한오후 박윤영 대표, 선·컬렉티브협회 지안 이주현 대표, 그리고 본교 요가명상학과 일종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2025 SCU 한마음 대축제



지난 10월 25일, 서울사이버대학교 제25대 총학생회 주최로 가을 정취가 한창인 본교 교정에서 '2025 SCU 한마음 대축제'가 열렸다. '우리는 하나! 소통으로 가까이 화합으로 하나되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는 학생·교수·동문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나눴다. 제25대 총학생회 이영우 회장은 "한마음 대축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이 하나로 이어지는 자리"라며, "3개월 이상 준비한 만큼 즐겁고 뜻깊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하이원리조트 아시아모델페스티벌 1위



모델연기학과 이재이 학우가 '20주년 2025 하이원리조트 아시아모델페스티벌 - 아시아 시니어 Open Audition & Competition'에서 1위를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10개국에서 선발된 시니어 모델 40여 명이 참가했다. 본교에서는 이재이 학우를 비롯해 정명숙, 우은자 학우가 본선에 진출해 뛰어난 무대 완성도와 표현력을 선보였다.

북한이탈주민 신편입생 노트북 기증식



지난 9월 27일, 본교 통일디딤돌연구원 학습지원센터와 동아리 레크리조이플저니는 사랑 나눔 노트북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날 증정된 노트북은 레크리조이플저니의 기부마켓 수익금과 기부금으로 마련되었다. 레크리조이플저니 이미애 회장은 "이번 나눔이 북한이탈주민 신편입생의 학업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 공동학술대회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과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서울사이버대학교는 7월 26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5 SCU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본교 통일디딤돌연구소, 미래사회전략연구소, 한국통일교육학회가 함께 마련했으며,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정부 정책의 연계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제21회 국방일보 전우마라톤대회



건군 77주년과 한미동맹 72주년을 기념하는 제21회 국방일보 전우마라톤대회가 지난 9월 27일 토요일, 월드컵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메인 협찬사로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또한 본교는 퍼플하트와 함께 대회 후 플로깅 행사를 진행하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제1회 SCU 차이콥스키 아마추어 피아노 콩쿠르



서울사이버대학교 피아노과는 표트르 차이콥스키 탄생 185주년을 기념해 제1회 SCU 차이콥스키 아마추어 피아노 콩쿠르를 지난 9월 20일 본교 차이콥스키홀에서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만 19세 이상의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들이 참가했으며, 청년부(19~34세)와 일반부(35세 이상) 두 부문으로 나눠 자유곡 1곡을 암보 연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버인지 보드게임 지도자과정



노인복지전공은 학생들의 사회복지 실무 역량 강화를 돕고자 '실버인지 보드게임 지도자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10월 18일과 11월 15일 두 차례 실습 특강으로 진행되었으며, 두 차례 특강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실버인지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제14회 스웨덴영화제



제14회 스웨덴영화제가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대외홍보처, 스웨덴영화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스웨덴문화예술협회가 후원해 열렸다. 올해 영화제는 지난 10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9일까지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칼-올르프 안데르손(Karl-Olov Andersson) 주한 스웨덴 대사와 한국스웨덴문화예술협회 이상균 회장(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양국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모델연기학과 스페셜 오픈클래스



모델연기학과는 지난 11월 5일 '스페셜 오픈클래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 탁구국가대표 현정화 감독과 SBS 슈퍼모델 출신 이상혁 강사가 초청돼 각각 '한계를 넘어 도전하는 삶'과 '바른 자세, 걸음걸이로 찾는 자신감'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현정화 감독은 선수 시절의 일화를 소개하며 "열정과 진심은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2025 제6회 성악과 정기연주회



서울사이버대학교 성악과는 지난 11월 15일 북서울꿈의숲 꿈의숲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6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하나되어 부르는 노래'를 주제로 SCU 합창단 46명과 SCU 여성합창단 16명 등 총 62명의 재학생이 무대에 올랐다. 성악과 학과장 이윤정 교수는 "학생들과 오신 관람객 모두에게 아름다운 감동과 희망의 에너지를 선사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기관 현장 견학



사회복지대학은 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실천 현장 기관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북구가족센터, 영등포노인복지관, 영등포푸름어린이집,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앤드,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빅핸즈(대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중부캠퍼스)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5년 제5회 국제상담심리세미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대학과 대학원이 지난 11월 22일 'AI 시대의 Human Touch'를 주제로 2025년 제5회 국제상담심리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의를 룰레오공과대학교 심리학과 알렉산더 로젠탈 교수, 스톡홀름대학교 심리학과 페르 칼브링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황매향 교수가 진행한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국방부 장관 감사장 수상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군 친화대학으로서 국방 AI학과를 통해 군 특화 교육에 힘쓰고 있다. 2025년에는 제21회 국방일보 전우마라톤대회에 메인 공식 협찬사로 참가했으며, 퍼플하트와 공동으로 부스를 운영해 부상 군인과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월 12일 국방부 장관 감사장 전달식이 열렸다.

'호두까기 인형' 초청 이벤트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신·편입생과 재학생, 입학 지원자를 대상으로 국립발레단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초청 이벤트를 지난 12월 13일 진행했다. 본교는 신·편입생과 재학생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매년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 MOU 뉴스 •

퍼플하트와 업무협약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6월 18일 퍼플하트와 협약을 맺고 제대군인과 유가족의 사회 복귀 및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수련·자문·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문화예술 교육과 AI 직무 역량 강화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휴시스와 업무협약



지난 6월 27일 본교에서 휴시스와 교육·산업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실무와 휴시스가 보유한 부동산 개발 및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을 접목해 양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포시청소년재단과 업무협약



서울사이버대학교와 김포시 청소년재단은 지난 7월 9일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청년 대상 AI 직무 역량 강화에 뜻을 모았다. 두 기관은 진로 교육 지원과 AI 기반 직무 교육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며,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청년센터 청춘벨딩과 업무협약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벨딩과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업무협약이 지난 7월 10일 진행됐다. 이번 협력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두 기관은 교육, 멘토링, 컨설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업무협약



지난 7월 30일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의 업무협약식이 본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은주 총장, 구국모 대외협력 부총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박근종 이사장, 성북구의회 이호건 의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창엔터 & Just Listen과 업무협약



서울사이버대학교 모델연기학과는 지난 8월 7일 본교 스마트강의실에서 창(暢)엔터, 저스트 리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본교 이은주 총장과 모델연기학과 송은지 교수를 비롯해 창(暢)엔터 손희태 대표, 저스트 리슨 이현욱 대표가 참석했다.

차 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과 업무협약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차 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과 지난 10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술치료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한국속눈썹전문협회와 업무협약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1월 11일 한국속눈썹전문협회와 '21세기 정보화·전문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이론과 기술의 공유'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속눈썹전문협회는 건강한 속눈썹 펴기 보급을 위해 창립한 사단법인이다.

강성훈

기계제어공학과

'위키독스 『나는 게으른 교수입니다』 출간, 2025년 6월

고윤승

온라인커머스학과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국제 무역 기반 인프라로서 슈퍼앱: 아시아 주요국 운용 구조와 리스크 비교」 게재, 2025년 8월

김동환

부동산학과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부동산융복합연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연구」 게재, 2025년 6월

김미주

보건행정학과

'2025년 한국학교보건학회 전기학술대회 「청소년 우울감과 관련된 건강행태 분석」 발표, 2025년 7월

김연주

피아노과

EduCon Singapore-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LECTURE-GROUNDED CHATGPT-4 TUTOR: ENHANCING ADULT LEARNER ENGAGEMENT IN DISTANCE LEARNING" 발표, 2025년 7월**김영민**

글로벌무역물류학과

'중앙대 디지털무역연구소 『디지털무역연구』 「E-Commerce 배송서비스품질 요구도 분석에 관한 연구」 게재, 2025년 8월

김요완

가족코칭상담학과

'2025년 추계가족상담 연계학회 공동학술대회 「초연결 시대에서 self에의 연결: 사티어 빙산 메타포를 중심으로」 발표, 2025년 10월

김윤나

사회복지전공

'아동청소년가족 전달체계 재구성을 위한 국회토론회 「청소년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제도적 한계」 발표, 2025년 7월

김은호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언어연구학회 『언어학연구』 「인터뷰 평가에서 나타나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상호작용적 발화 수정 유형」 게재, 2025년 4월

김지연

상담심리학과

'2025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와 미래사회전략연구소 공동 주최 춘계학술대회 「디지털 게임 내 성폭력 가해에 대한 영향요인」 2025년 5월

김현진

상담심리학과

공동체 『평생교육사를 위한 성인학습 및 상담』 출간, 2026년 1월

김환

시크리에이터학과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하계학술대회' 「간단한 회로에 대한 잠금 기법 설계 비교」 발표, 2025년 8월

노건태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증명 가능한 목적형 완전 동형 암호」 게재, 2025년 8월

박기훈

사회복지전공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미래사회』 「일본의 노인 삶의 보람 추로 현황 및 과제: 삶의 보람 추로에서 삶의 보람 활동으로」 게재, 2025년 10월

박형원

사회복지전공

'보건학종합학술대회' 「에이즈 감염인의 장기요양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고찰」 발표, 2025년 5월

신지연

피아노과

서초문화재단 반포심산아트홀 '해설이 있는 듀오콘서트 시리즈 VII' 참여, 2025년 7월

윤소영

교양학과

반포심산아트홀, '윤소영 피아노 독주회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3)' 연주, 2025년 4월

윤재현

드론·로봇융합학과

PHM Society Conferences 2025 "Data-Efficient and Uncertainty-Aware RUL Prediction Using Physics-Informed Neural Networks: Application to Degraded Rubber Components" 발표, 2025년 10월**이서영**

사회복지전공

'동아시아일본학회춘계학술대회' 「요양보호사의 LMX, TMX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발표, 2025년 5월

이성만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EduCon Singapore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LECTURE-GROUNDED CHATGPT-4 TUTOR: ENHANCING ADULT LEARNER ENGAGEMENT IN DISTANCE LEARNING" 발표, 2025년 7월**이성태**

컴퓨터공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미래사회』 「사이버대학교 학습자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연구」 게재, 2025년 10월

이완형

AI서비스마케팅학과

커뮤니케이션북스 『AI와 경영 철학』 출간, 2025년 7월

이우경

심리학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웰다잉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의 웰다잉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게재, 2025년 5월

이윤정

성악과

영산아트홀 '아리아스 앙상블 제32회 정기연주회: Memoria' 참여, 2025년 10월

이의신

문화예술경영학과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문화자본 전환과 확장: 커버송 아티스트 제이플라를 중심으로」 게재, 2025년 6월

이종원

컴퓨터공학과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하계학술대회' 「간단한 회로에 대한 잠금 기법 설계 비교」 발표, 2025년 8월

이지영

통일안보북한학과

'2025 SCU 공동학술대회' 「북한이탈주민과 실향민의 협력 플랫폼 구축: 통일 및 사회통합 기능을 중심으로」 발표, 2025년 7월

이향아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한국콘텐츠학회' 「KOCON 2025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Invitation Exhibition」 <냉이꽃> 전시, 2025년 5월

이희연

사회복지전공

'2025 청소년 5대학회 연합학술대회' 「청소년의 주거환경과 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발표, 2025년 5월

임세희

아동복지전공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아동 주거급여의 필요성과 정책 구성 탐색」 게재, 2025년 5월

전광호

경영학과

‘한국비즈니스학회’ 『비즈니스융복합연구』 「온라인 학습자의 학습 행동과 성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LMS 로그데이터 기반」 게재, 2025년 4월

전호진

세무회계학과

‘사회혁신기업연구’ 『혁신기업연구』 「녹색경영활동이 물류기업 종업원 보상에 미치는 영향: 내부적 CSR 관점」 게재, 2025년 6월

정규리

회화과

‘NCISS’ 『디지털예술공학멀티미디어논문지』 「인공수정과 대리모의 은유를 통한 회화 창작 주체의 재구성」 게재, 2025년 6월

정상원

직업·진로상담학과

‘2025년 일본기독교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_기독교의 코이노니아 - 교회와 사회복지의 협동’ 「기독교 영성사회복지 사정 도구 개발 연구」 발표, 2025년 6월

조성민

시스마트팜학과

EduCon Singapore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LECTURE-GROUNDED CHATGPT-4 TUTOR: ENHANCING ADULT LEARNER ENGAGEMENT IN DISTANCE LEARNING” 발표, 2025년 7월

차명희

뷰티디자인학과

‘한국콘텐츠학회’ ‘KOCON 2025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Invitation Exhibition’ <Evolution of Content> 전시, 2025년 5월

채정민

상담심리학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기후위기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동향과 미래 과제」 게재, 2025년 8월

천지영

인공지능학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증명 가능한 목적형 완전 동형 암호」 게재, 2025년 8월

최정한

실용음악과

‘2025년도 대한기계학회 교육부문 춘계 학술대회’ 「AI 휴먼 교수 모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환경 개선과 몰입형 학습 경험 제공」 발표, 2025년 6월

최혜라

상담심리학과

공동체 『평생교육사를 위한 성인학습 및 상담』 출간, 2026년 1월



‘아시아퍼시픽 오픈배지 어워드’ SILVER 수상



아시아퍼시픽 오픈배지 어워드
SILVER상



아시아퍼시픽 오픈배지 어워드
실버 수상 인증서



글로벌자격관리센터 박형원 처장, 김사랑한움콤 주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1월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5 제3회 아시아퍼시픽 오픈배지 어워드’에서 교육기관 부문 ‘SILVER(은상)’를 수상했다. 이는 글로벌자격관리센터를 통해 운영 중인 본교 오픈배지 운영 체계와 마이크로디그리 기반 교육 모델이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첫 사례이다.

본교가 제출한 ‘사회서비스 데이터 운용’ 오픈배지는 혁신성, 유용성, 커리어·역량 정합성, 사회적 영향력, 국제표준 적합성 (1EdTech)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심사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오픈배지와 마이크로디그리를 결합한 교육 모델 구축, 다양한 배지 발급과 안정적 운영을 통해 2025년 상반기 국내 대학 발행 수상 위권을 기록한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일본 및 국내 오픈배지 어워드 수상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디지털 배지 확산과 운영 기준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학사, 석사, 박사학위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에서
국내 일등 사이버대학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정가 : 5,000원

대학원 석사·박사
학부 신입생·편입생

입학 문의 02-944-5500
입학 문의 02-944-5000

대학원	사회복지대학	심리·상담대학	사회과학대학	융합경영대학	디자인대학
사회복지학과 상담·임상심리학과 AI융합기술학과 (신설) 음악학과 (신설) 뷰티산업학과 (신설)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상담심리학과 가족코칭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특수심리치료학과 심리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안전관리학과 통일안보복합학과	경영학과 글로벌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회계학과 SI서비스마케팅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문예창작학과 (개편) 뷰티디자인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신설)
예술대학	공과대학	미래융합인재대학	AI융합대학	웰니스건강대학	마이크로디그리대학
피아노과 성악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실용음악과 음악치료학과 회화과	컴퓨터공학과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인공지능학과 드론·로봇공학과 (개편) 응용수학·통계학과 (신설)	AI커머스학과 (개편) 모델연기학과 실용영어학과 국방AI학과 (개편)	AI크리에이터학과 AI부동산빅데이터학과 AI스마트팜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 (신설)	통합건강관리학과 요가명상학과	자유전공

사이버대학 중 최다 11개 단과대학, 49개 학과(전공) 신·편입생 모집



입학 안내